



준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evala@buddhapia.com



### ‘소망교도소’ 착공을 보며

개신교계가 설립하는 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10월 22일 경기도 여주군에서 첫 삽을 떴다. 비영리인 소망교도소 건립비 300억 원은 개신교 아가페재단이, 연간 운영비용 46억 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종교자유 침해 문제와 민간에 의한 형벌·징벌권 문제 등을 들어 개신교 민영교도소 도입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가페재단이 공개적으로 밝힌 종교개편 토링, 지역교회 연계 취업설계 등이 교정을 하나의 선교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이 아닌, 수감자와 국민을 위한 교정으로 바라본 종교교도소는 다르게 비춰진다. 소망교도소에는 전국 각 교도소에서 희망하는 전과 2명 이하의 수용자 중 잔여형기 1~7년 성인 남성 300~500명이 이소될 예정이다. 수감자 종교를 감안하고, 지원으로 입소된다는 점에서 소내 종교자유 문제보다 불교 등 타종교 수감자의 혜택 역차별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불교계 민영교도소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전국 47개 교도소·구치소에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4만 8000여 명이 수용돼 있고, 교도관 1인당 수용자는 3.3명, 외국(평균 1.3~1.7명)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의 교도소는 인력부족 및 수용과밀 등으로 재범률이 50%를 넘는

‘범죄기술전수학교’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교정사업에 민간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인 것이다.

정부는 민영교도소 도입에서 종교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경비절감을 위한 인권침해 등 일반 민영교도소의 단점이 분명하기 때문. 물모델 브라질 휴마타 교도소는 1984년부터 가톨릭이 수탁 운영해 재범률을 4%까지 낮춘 바 있다.

기독교계는 1995년 한기총 산하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를 발족시켰고, 1998년 8월 김대중 정부의 민영교도소 정책 발표 직후 공청회 개최, 토지매입 등 재빠른 행보를 걸었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특정단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영교도소법 제정에 대한 반대 성명만 발표했다. 민영교도소법이 제정되고 사업제안서를 통한 수탁선정이 2001년 12월 21일 기한으로 공포되자 12월 5일 불교민영교도소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참석자가 없어 자연적으로 무산됐다.

민영교도소를 통한 수감자 교화와 사회 재적응은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일이다. 포교 분야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또한 일찌 날기는 농부만이 풍작을 맞을 수 있다. 늦었지만 불교계도 제2 민영교도소 건립을 위해 다시금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인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탈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광고국 (02)2004-8213-7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519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 문화재 관련 정책·행정 여전히 부실

###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지적 줄이어

올해초, 승례문 화재 참사는 문화재 정책 및 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문화재 관리·감독을 비롯한 정책 수립, 예산 집행 등 문화재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친 지적이 나와 제2의 승례문 참사마저 우려케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화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10월 21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가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재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용경 의원(한나라당)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체 국보 309점 가운데 개인 소장품이 86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전 회 삼성 명예회장이 25점, 삼성문화재단이 12점을 소유해 삼성 측이 전체 국보의 약 12%의 소유 주체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국가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가 감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재시설 및 도난방지 시스템 미비 등 부실한 문화재 관리도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허원재 의

원(한나라당)은 “문화재청 공능유적 관리소 21개 기관의 소방시설을 점검 결과, 자체 소방살수차를 보유한 곳은 턱수급이 유일하다”며, “화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대비 시스템을 잘 갖추라”고 주문했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은 전남 순천 선암사 보수공사에 10년간 100억원 정도가 투입됐지만 사후관리 부실로 문화재 훼손이 심각해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년간 198건 5449점의 문화재를 도난당했으나 이 가운데 47건 2099점만 회수돼 회수율이 38.4%에 그쳤다”며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 소장처 323곳 중 도난방지시설이 없는 곳이 71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4~2007년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집행액은 불용액(예산)을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이 4억6000만원에 달한다”며 “이러한 불용액을 도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난당한 문화재를 회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굴문화재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용경 의원(강

조한국당은 “지난 40여 년 간 전국의 유적에서 출토돼 국고 귀속이 확정되거나 확정 대상인 발굴 문화재 유물 35만여 점이 국가기관에 넘겨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발굴기관으로부터 인수하지 못한 유물이 15만점에 이른다. 유실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유물이 발굴되면 발굴기관이 2년 안에 국가 귀속 여부를 판단해 신고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조영택 의원(민주당) 등은 업무파악과 관련한 이견도 문화재청장직 태도를 추궁했다. 안 의원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위한 테크포스가 문화재청에 마련돼 있는지를 물었고, 조 의원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문화재청장을 질타했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4년간 문화재 전문위원의 활용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촉한 전문위원 활용률이 50%대로 저조한 것은 문화재청이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 17사단 호국연주사 신축법당 낙성법회



육군 17사단 호국연주사(주지법사 덕명) 신축법당 낙성법회가 10월 16일 봉행됐다. 불불 점안의식, 낙성식, 개원기념법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17사단장, 행정부사단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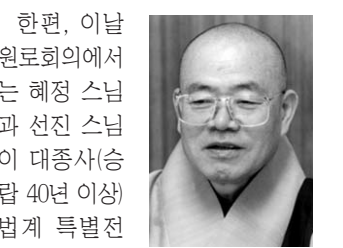
### 조계종 전계대화상에 고산 스님 추천

#### 17일 원로회의서...31일 해인사서 대중사 12인 품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성수 대중사 후임으로 고산 대중사(쌍계사 조실·사진)를 전계대화상으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고산 스님은 조만간 종정 법전 스님으로부터 전계대화상 임명장을 받아 11월 20일부터 3년간 소임을 수행하게 된다.

고산 스님은 해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48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또 2004년 5월 31일 해인사에서 대중사 법계를 받았다. 스님은 쌍계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법제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쌍계사에서 조실로서 후학들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는 혜정 스님과 선진 스님이 대중사(승랍 40년 이상) 법계 특별전형을 통과해 10월 31일 오전 10시 해인사에서 열리는 품서식에서 대중사 법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전 종정 스님으로부터 대중사 법계를 품수하는 스님들은 도문 스님, 혜정 스님, 지중 스님, 선진 스님, 명선 스님, 무진장 스님, 월서 스님, 혜승 스님, 정무 스님, 고우 스님, 현해 스님, 법흥 스님이다. 대중사 법계는 조계종 최고의 법계로서 스님들의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 서열의 기본이다.

김성우 기자

### 조계종 정기중앙총회 11월 6일 개최

조계종 제179차 중앙총회(총회의장 장승) 정기회가 11월 6~20일 1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기중앙총회에서는 14대 중앙총회 하반기 총회의장 선출과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내년도 중앙총무기관 예산안 심의, 종무기관 종정 감사, ‘사람부 동산관리법 제정안’ 등 종헌종법 제·개정 안건 등을 다룬다.

김성우 기자

### ‘제20회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21~30일 ‘제20회 포교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분야별로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추천분야는 계층포교(어린이, 청소년 등) 직능포교(군, 경찰 등) 문화체육포교(연예, 스포츠 등) 사회포교(통일, 환경) 매체포교(방송, 인터넷 등)의 5개 분야다. 포교원은 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02)2011-1900 노덕현 기자

### “성철 스님 법문 통해...”

#### 불교인재개발원 백일법문

조계종 중앙인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11월 13일부터 2009년 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교육관에서 ‘성철 스님에게 불교정법을 배운다’ <백일법문> 강좌를 실시한다.

<백일법문>은 1967년 해인총림 방장에 취임한 성철 스님이 동안거를 맞아 백일동안 설법한 법문을 정리해 펴낸 책이다.

이번 강좌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을 증명법사로, 원철 스님(前 해인사 강사), 일묵 스님(해인사 백련암) 등이 강의한다.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의 특강 ‘내가 본 성철과 한국불교’도 마련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 동참금은 12만원. (02)735-2428

김진성 기자

### “적게 쓰고 먹으며 심신 조화 이루자”

#### 인성형 아동·청소년 비만치유 프로 발표회

청소년 비만을 치료하는 신개념 불교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0월 3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비만치유학교 ‘The Less The More’ 프로그램 개발 발표회를 갖는다.

‘The Less The More’는 적게 쓰고 적게 먹음으로써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배양하는 뜻을 담고 있다. 사찰음식 식단개발, 다도명상, 숲체험,

요가명상 등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적 먹거리를 활용한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습관 변화와 생태적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발표회에서는 김재일 생활생태연구소 연구소장, 범우 스님(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도명상 강사) 등의 강연과 노숙영 교수(중앙대 식품영양학과), 조승미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등의 논평이 진행된다. (02)723-5101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간과 장가를 동시에 저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 생활홍보, 행사, 개인다큐(사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서울방송, 강원대 영상학과 강사)

## 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이·취임 법회 행

### 모시는 글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삼보전에 축원 드립니다.

민족불교 수호와 정의의 산실인 (재)선학원이 설립 88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설립 조사들의 설립 이념을 계승하여 ‘대중불교의 전개’와 ‘화합’이라는 제2의 설립정신으로 미래의 (재)선학원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에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는 대덕 큰스님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제 16대 이사장 도형 스님 이임식 및 제17대 이사장 법진 스님 취임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동참하시어 법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다 음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11월 5일 (음 10. 8) 오전 11시
- 장 소 : 중앙선원 대법당
- 문 의 : 서울 종로구 안국동 40 (02)734-9654~6 (재단사무국)

※ 화환이나 꽃다발은 정중히 사양하며, 당일 후원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